

2026학년도 LEET 전국 순회 설명회

ALL ABOUT LAW SCHOOL

로스쿨 인사이드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야
끝내 시들지 않는다.

— 유마경(維摩經) —

CONTENTS

CHAPTER 1

04

법학적성시험 개요

05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08

기출문제(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CHAPTER 2

14

로스쿨 개요

16

교육과정 소개

18

장학금 제도

20

특별전형 선발제도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22

실무교육

23

변호사시험

CHAPTER 3

24

2025학년도 LEET 채점 결과

25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26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27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33

재학생 인터뷰

34

졸업생 인터뷰



발행일	2025년 4월
등록번호	2289-0262
발행인	홍대식
편집·진행	박소희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02-752-2037)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34, 5층
디자인	(주)그리고나무(02-2268-2592)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3길 51
인쇄	(주)빅북프린즈

법학적성시험 개요

» 법학적성시험(LEET)이란?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별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심시간			12:50 ~ 13:50	
3	논 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법학적성시험 점수 체제

- **성적 제공:**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은 표준점수와 그에 해당하는 백분위만 제공함. 영역별 합산점수는 발표하지 않으며,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한다.
- **표준점수:**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 원점수의 분포를 영역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도록 변환한 분포 상에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 **백분위:** 백분위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로, 해당 수험생의 백분위는 수험생이 받은 표준점수보다 낮은 표준점수를 받은 수험생 집단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점수이다.

»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활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 결정에 따라 학부 성적, 어학 성적, 면접, 자기소개서 등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 요소의 하나로 활용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출제 기본 방향 및 문항 유형

» 공통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한다.

»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 문항 분류표

내용 유형 \ 문항 유형	주제, 구조, 관점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 (1) **주제, 구조, 관점 파악**
 - 제시문의 주제나 구조와 전개 방식 또는 제시문에 소개된 인물(글쓴이 포함)이나 이론의 관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2)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 제시문에 나타난 정보 및 정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다른 표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3) **정보의 추론과 해석**
 - 제시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해 정보가 가지는 적합한 의미를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4) **정보의 평가와 적용**
 - 제시문에 주어진 논증이나 설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제시문에 소개된 원리를 새로운 사례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한다.
- 문항 분류표

내용 유형	문항 유형	추리		논증		
		언어 추리	모형 추리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논리학 · 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1) 언어 추리

- 함축 및 귀결: 제시문의 정보로부터 함축되는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원리 적용: 규범 및 규칙이나 일반 원리를 해당되는 사례에 적용해 올바르게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사실관계 추리: 부분적인 정보나 증거가 주어질 경우 이로부터 특정한 사실관계를 추리하거나 특정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2) 모형 추리

- 형식적 추리: 주어진 전제들로부터 형식논리의 추론규칙을 이용해서 연역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어떤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전제를 찾는 능력을 측정한다.
- 논리게임: 제약조건 하에서 올바르게 항목을 배열하거나 연결하기 등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제시된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수리 추리: 수, 도형, 표, 그래프로 표현된 비언어적 정보로부터 추리나 간단한 수리 연산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3) 논증 분석

- 명시적 요소 분석: 논증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전제들과 결론을 찾아내고, 전제들이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암묵적 요소 분석: 논증이나 추리과정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략된 전제들을 찾아내어 완전한 논증이나 완전한 추리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구조 분석: 논증 전체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4) 논쟁 및 반론

- 논쟁 분석 및 평가: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공통의 가정 내지 전제를 파악하며, 논쟁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반론 구성: 주어진 논쟁의 상황에 참여하여 한쪽 입장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5)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 논증 평가: 주어진 논증의 적절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거나, 잘못된 논증을 분석하여 논증이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강화 또는 약화: 새로운 정보나 증거의 추가가 기존의 논증을 강화 또는 약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문제해결: 옳다고 믿는 가설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어떤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측이 틀린 역설적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 평가 목록 분류표

내용 유형	문항 유형	분석		구성			
		논제 분석	사례 분석	논증	비판	전개	표현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							
복합							

(1) 분석

- 논제 분석: 주어진 논제의 의도와 그것이 요구하는 과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 사례 분석: 주어진 사례를 이해하고 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다.

(2) 구성

- 논증: 논리적으로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비판: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평가 및 판단 능력을 측정한다.
- 전개: 심층적 및 독창적 사고를 구성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 표현: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기출문제(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언어이해] 2025학년도 출제문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학이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을 반영한다는 명제는 법의 영역에도 적용된다. 문학적 서사는 한 시대의 법인식과 정의관을 비추는 거울이다. 문학 속의 법은 비윤리나 무질서와 대비되는 규범·규율의 상징, 또는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열리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 같은 대상으로 그려진다. 문학의 감성적 호소력은 독자를 일정한 행위 방향으로 이끌어 법의 제·개정을 추동하기도 한다. 1830년대 영국에서 유행한 범죄소설은 이러한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 준다. 범죄자 처형기록부인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인물과 소재를 차용해 ‘뉴게이트 소설’이라 불린 이 시기 범죄문학 장르는 재판 관행 및 행형 실태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산물이었다. 그것은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 범죄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을 선전·유포하여 형법 개혁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불워-리턴의 『폴 클리퍼드』는 뉴게이트 소설 열풍의 서막을 연 작품이다. 그 서두에서 작가는 소설 집필의 동기가 영국 형법의 두 가지 근본적 야만성, 즉 수감자를 교화하기보단 타락하게 만드는 행형, 그리고 단순 절도범마저 공동체로 복귀할 기회를 박탈하는 ㉠ 피에 굶주린 형법전에 대한 교정임을 밝혔다. 범죄자가 들끓는 술집에서 유년기를 보낸 클리퍼드는 소매치기 누명으로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거듭한다. 법정에서 그는 죄 없는 소년으로 감옥에 갇던 자신이 법을 깨뜨릴 준비가 된 남자로 그곳을 나왔으며, “당신들의 법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더니 이제 죽이려 든다.”라는 항변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발한다. 법은 범죄자를 만드는 계급과 처벌하는 계급만을 위해 존재할진대, 생존의 막다른 골목에 놓인 빈민을 ㉡ 자연의 제일법칙에 입각한 선택지만 남은 상황으로 내몬 다음 그 선택지를 집었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의일 수 있는지 소설은 질문한다.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자를 신비화하고, ‘참회하는 자’와 ‘자비를 베푸는 자’ 또는 ‘추궁당하는 자’와 ‘추궁하는 자’의 역할을 전도시키는 데까지 나아갔다. 불워-리턴의 후속작 『유진 아람』엔 주인공의 범행 사실을 밝혀낸 자가 도리어 공동체의 지탄을 받고 주인공의 용서를 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중적 인기를 끌었던 에인즈워스의 『룩우드』 또한 영웅의 일대기처럼 범죄 서사를 구성하고 노상강도의 삶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적 묘사나 형법 개혁의 메시지에 대해선 평가를 유보했던 지배계급은 이런 전복적 설정에 대해서는 ㉢ 교수대에 낭비된 감수성이라 격렬히 비난했다. 소설이 연극으로 만들어져 중산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수용층이 넓어지자 불온한 열광에 대한 우려는 증폭되었다.

작가는 ㉣ 문학적 공범자가 되어선 안 되며 무죄의 타락상을 정확히 보여 줘야 한다고 주장한 새커리는 『뉴게이트 캘린더』에서 한 여성 범죄자를 발굴하여 『캐서린』을 집필했다. 범죄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개인사를 부여한 지점까지 이 소설은 뉴게이트 소설의 통상적인 문법을 따랐다. 하지만 범죄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자 인물의 유년기를 조명했던 앞선 작가들과 달리, 새커리는 범죄성이 개인의 병증이나 타고난 악함에 의한 것임을 밝혀 독자의 공감을 차단하려 했다. 주인공의 처형 장면은 기사 인용 형태로 건조하게 기술되었다. 처벌은 악인의 참회와 독자의 눈물을 위한 최소한의 유예를 허락하지 않은 채 가해집으로서 ㉤ 봉쇄된 정의를 실현했다. 하지만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은 독자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읽히기 마련이다. 수전노로 악명 높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합하고자 살인을 조력한 주인공의 욕망은 독자에게 뜻밖의 호소력이 있었다. 범죄에 대한 구도를 유발하고 사회의 건강을 회복시킬 악물을 투입하겠다는 작가의 기획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역시 범죄소설의 자장 안에서 읽힌다. 범죄자의 삶을 세밀히 묘사하는 작법은 여기서도 사용되었으며, 익살스럽고 입체적인 악역들은 오락적 요소를 배가했다. 악인 대신 어린 올리버가 주인공으로 설정됐으며, 그 주변 인물인 소매치기들은 자기 삶을 ‘로맨스와 열정이 가득한 유쾌한 것’이라 말하지만 실상 그 삶이 교수대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다. 반면 올리버는 구빈원에서 단지 죽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혔음에도 탁월한 통제력으로 범죄 유혹을 물리쳤고 마침내 사회로부터 보상받는다. 뉴게이트 소설의 시대가 저문 후에도 이 소설이 꾸준히 읽힌 데엔 법의 부정의를 고발하되 해학과 권선징악이라는 안전장치를 두어 법질서 자체를 교란하지는 않았던 작가적 선택이 한몫했을지도 모른다.

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형법 개혁 운동은 범죄소설 열풍의 계기이자 성과였다.
- ② 뉴게이트 소설은 범죄를 질병으로, 형벌을 치료로 이해한 당대 범죄 담론을 강화했다.
- ③ 『캐서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은 문학작품이 항상 작가의 의도대로 읽히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 ④ 기득권층은 뉴게이트 소설의 대중적 전파력 확대가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 여겼다.
- ⑤ 『폴 클리퍼드』의 경우와 달리 『올리버 트위스트』는 범행 착수의 기로에 선 개인의 선택과 의지력을 강조했다.

[정답] ②

[문항 유형] 규범 -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난이도] 하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죄에 비해 과한 형을 구형하거나 사형 선고를 남발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 ② ㉡은 살아남기 위해 주어진 계급적 위치와 역할에 순응해야 하는 운명을 가리킨다.
- ③ ㉢은 범죄자와 유대감을 형성하여 범법과 준법의 경계를 허물려는 감수성을 가리킨다.
- ④ ㉣은 대중의 기대에 따라 범죄자를 이상화하는 방식으로 그려내는 작가를 가리킨다.
- ⑤ ㉤은 범죄자에 대한 독자의 감정이입을 차단한 상태에서 구현되는 정의를 가리킨다.

[정답] ②

[문항 유형] 규범 - 주제, 구조, 관점 파악

[난이도] 중

3. 밑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디킨스는 법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범죄의 해악에 대한 훈계를 한 작품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을 것이다.
- ② 불워-리턴과 디킨스 모두 뉴게이트 소설의 작법에 따라 범죄자에게 자기 정당화의 기회를 많이 주었을 것이다.
- ③ 에인즈워스와 새커리 모두 범죄소설의 목적은 범죄자의 교화나 참회를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 ④ 불워-리턴은 개인의 잠재된 범죄 성향을 찾기 위해, 그리고 에인즈워스는 영웅적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범죄자의 유년기를 다루었을 것이다.
- ⑤ 불워-리턴은 새커리와 달리 범죄자와 독자 대중의 심정적 거리를 좁히고자 했을 것이다.

[정답] ⑤

[문항 유형] 규범 - 정보의 추론과 해석

[난이도] 하

[추리논증] 2025학년도 출제문항

6.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X국의 법에 의하면 의료인이 그 의료행위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인 자신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으로서의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밝혀내기 극히 어렵고, 주의의무 위반이 밝혀지더라도 배상에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다음과 같이 제출되었다.

<1안>

제○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2안>

제○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국가는 보상 후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3안>

제○조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는 국가가 보상한다. 국가는 보상 후 그 의료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 기]

- ㄱ.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안>에 따르든 <2안>에 따르든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ㄴ.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2안>에 따르든 <3안>에 따르든 환자는 국가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ㄷ.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1안>, <2안>, <3안> 중 어느 것에 따르더라도 국가는 의료인에게 보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문항 유형] 규범 - 언어 추리
[난이도] 중

28.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얼굴에 나타난 정서 표정의 차이가 기억에 주는 효과를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화내거나 우는 등의 부정적 표정이나 무표정한 중성적 표정의 사진을 학습시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 사람들의 사진들 중 이전에 본 사람의 얼굴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학습 시의 사진 속 표정과 기억 검사 시의 사진 속 표정 사이의 차이로 인해 기억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서 표정이 얼굴 기억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와 검사 단계에서의 정서 표정의 차이에 따른 기억률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구성하였다.

<가설>

- A: 부정적 표정을 지닌 얼굴에 대한 기억률이 중성적 표정에 대한 기억률보다 높다.
- B: 부정적, 중성적 표정의 차이보다, 학습 시와 검사 시 표정의 일치 여부가 기억률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실험>

- 실험 1: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 한 집단은 부정적 표정의 얼굴을, 다른 집단은 중성적 표정의 얼굴을 학습한 후 검사 단계에서 학습 단계와 동일한 표정으로 기억 검사를 받았다.
- 실험 2: 참가자들은 모두 부정적 표정의 얼굴을 학습한 후 검사 단계에서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뉘어 각각 부정적 표정과 중성적 표정으로 기억 검사를 받았다.

[보 기]

- ㄱ. 실험 1의 결과, 두 집단의 기억률이 유사하다면 A는 약화된다.
- ㄴ. 실험 2의 결과, 두 집단의 기억률이 유사하다면 A는 약화된다.
- ㄷ. 실험 1의 결과, 두 집단의 기억률이 유사하고, 실험 2의 결과, 검사 시 부정적 표정을 본 집단의 기억률이 검사 시 중성적 표정을 본 집단의 기억률보다 높다면 B는 강화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문항 유형] 사회 - 논증 평가 및 문제해결
[난이도] 중

[논술] 2025학년도 출제문항

1. <입법정책>과 <사례>를 읽고 <논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900~1200자, 50점)

<조건>

- 1. 각 <사례>의 문제점을 요약하고, 자신이 선택한 <입법정책>을 지지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다른 정책을 반박할 것
- 2. 지지 또는 반박하는 경우 관련된 <논거>를 활용할 것
- 3. <논거>를 활용할 때는 논거①, 논거②와 같은 방식으로 명시할 것

<입법정책>

- 1안 :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
- 2안 :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며, 설립 이후에도 행정관청이 법인의 활동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 방안

※ 법인이란 사람 외에 법률에 의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사례>

<사례 1>

X국의 A법인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운영비는 주로 회원들의 회비 및 후원 기관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A법인은 설립 목적에 맞게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취업 알선, 인권 보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지출 내역 등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최근 최부자 씨도 부를 대물림하기보다는 사회에 환원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공익법인의 설립을 구상 중이지만,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주저하고 있다. X국에는 최부자 씨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별로 없다.

<사례 2>

Y국의 B법인은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의 대표자는 전국 20개 지점의 전화 상담사를 통해 여러 사람에게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단체라고 소개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외 계층 아동들의 나눔 교육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자신의 계좌에서 월 1만 원씩 자동 출금하게 하여, 그 금액이 총 100억 원 정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임직원들의 급여와 업무용 차량 구입 및 해외 연수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전체 20% 정도가 학생들의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

<논거>

- ① 고대에는 노예가 단지 물건으로 취급되어 거래의 대상이었다. 근대에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을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이해하며, 이성에 의한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을 보장하려는 자유주의의 영향으로 모든 사람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본다. 현대에는 법인 설립과 운영도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으로 보아 법인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 ② 사람과 달리, 법인은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해 법률이 인위적·기술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한 것이다. 법인의 설립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일반인은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인정되는지 알 수 없고 법인이 마구 설립될 우려가 있다. 어떤 단체가 법인으로 설립되면 그 목적으로 삼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내·외부적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 ③ 미래경영학자 드러커(Drucker)는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정부(제1섹터)나 기업(제2섹터)의 역할보다 비영리조직(NPO)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정부는 국가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영리사업을 마냥 늘릴 수 없고 기업은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근원적 한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의 자유로운 설립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 ④ 로마법학자 사비니(Savigny)는 권리를 인간의 의사 지배로 보면서, “모든 권리는 개개인에 내재하는 도덕적인 자유를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하였다. 그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주체는 원래 사람의 개념과 일치하지만, 인간의 집단적인 자유의 실현도 가능하도록 법인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인이란 사람의 자유와 결부된 것이지 사람을 벗어난 새로운 주체는 아니다.
- ⑤ 법인은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외형상 법인의 행위임을 이유로 법인만이 법적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면서 배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

<논술: 1번>

[문항 유형] 사례형

[난이도] 중

로스쿨 개요



» 입학정원

- 정부의 엄격한 설치인가 심사를 거쳐 전국의 총 25개 대학(정원 2,000명)에 설치

구분	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입학정원: 명

» 교원

- 전임교원 수 20인 이상 확보
- 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이하
-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이 있으며 실무경력 5년 이상) 20% 이상 확보

» 교육 시설

- 단독 건물, 강의실(대형 강의실 1개 이상 포함),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교원연구실, 세미나실, 연구소, 휴식공간 등
- 법학전문대학원 전용도서관: 전자저널을 포함한 학습저널 3개국 30종 이상 확보
- 학생 1인당 실 면적 12㎡ 이상 확보
- 열람실 보유: 편제정원의 70% 이상을 한 번에 수용(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1인 1석 제공, 사물함 배치)

» 전용 기숙사 시설

- 전체 학생 중 54.8% 기숙사 시설 사용 가능
(현재 학교별로 최고 19.4% ~ 최대 166% 확보)

» 학생 지원

- 전체 운영수입 중 등록금 의존율 55% 미만으로 유지
- 로스쿨이 학생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상의 교육비를 투자
-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30% 이상
- 리걸클리닉(학생들이 실제사건 법률상담 진행) 및 연구소 운영



교육과정 소개

» 교육과정의 특징

이론과 실무의 융합

-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되는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기본과목과 기초법, 외국법, 비교법 등 이론적 토대를 형성하는 선택과목을 통해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소양 배양
- 배양된 법률지식과 소양이 현실적인 분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실무경력 교원을 통해 다양하고 충실한 실무교육을 제공

학제적·종합적 교육

- 문답이나 토론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수업으로 기존의 강의 방식과 차별화
- 교과과정 중 다수의 과목에 있어서 경제학, 정책학, 철학, 인류학, 여성학, 역사학 등 관련 과목 및 과학기술, 정보통신, 의료 등 인접 분야와의 융합을 추구

공익과 직업윤리 강조

- 법률전문지식 이외에도 건전한 직업윤리를 갖춘 법률가로 교육
- 교과과정 중 법조윤리 및 공익인권 관련 과목들을 다수 편성

» 교육과정 개요

이론교육	
• 기본법학 : 법률가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사고능력을 기르는 과목	
과목	내용
공법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민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과목
형사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분야의 항목
•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 인간, 역사, 사회와 연관된 법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는 과목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에 대한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과목	
과목	내용
기초법학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인접과목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
• 전문법학 : 전문적인 지식과 응용능력을 배양하는 과목으로 기업법무,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존 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	

실무교육

- 필수실무(5개) : 실무의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시키고 기본 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하게 함으로써, 실무와 이론을 연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

과목	내용
법조윤리	· 법률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행위준칙을 제시하고 그 실천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개설된 과목
법률정보의 조사	·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사용하는 방법, 외국의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
법문서의 작성	· 법률전문가의 필수적 자질인 법률문장 작성방법을 익히게 하고, 소장, 준비서면, 법률의견서, 신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법문서 작성법을 가르치는 과목
모의재판	· 헌법, 민사, 형사재판에 관한 모의적인 상황 속에서 법률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재판실무에 관한 기초적인 기능을 가르치는 과목
실습과정	· 의뢰자를 면접, 상담, 설득하는 방법이나 교섭, 조정, 중재 등 분쟁해결방법론(ADR)의 이론과 실무를 역할학습을 통해 가르치는 로여링(Lawyering) · 변호사 교원의 감독, 지도 아래 구체적 사건을 접하게 하여 법률상담, 사건 내용의 예비적 청구, 관계법령의 조사, 문제해결안의 검토 방법을 가르치는 클리닉(Clinic) · 변호사 사무실, 기업의 법 관련 부서, 관공서의 법 관련 부서에서 연수를 하게 하는 인턴십(Internship)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교육과정)에 규정됨.

» 특성화 프로그램

- 인적·물적 여건 및 지역 내 사회적 환경 등을 감안하여 25개 법학전문대학원별 다양한 특성화 분야가 교육과정에 포함

학교명	내용	학교명	내용	학교명	내용
강원대	환경법	서울시립대	조세법	전북대	동북아법
건국대	부동산 관련 법	성균관대	기업법무	제주대	국제법무
경북대	IT법	아주대	중소기업법무	중앙대	문화법
경희대	글로벌기업법무	연세대	공공거버넌스와 법, 글로벌 비즈니스와 법, 의료·과학기술과 법	충남대	지적재산권
고려대	GLP(국제법무)	영남대	공익·인권법	충북대	과학기술법
동아대	국제상거래법	원광대	의생명과학법	한국외대	국제지역법조인양성
부산대	금융·해운통상법	이화여대	생명의료법, 젠더법	한양대	국제소송법무, 지식·문화산업법무, 공익·소수자인권법무
서강대	기업법(금융법)	인하대	물류법, 지적재산권		
서울대	국제법무, 공익인권, 기업금융	전남대	공익인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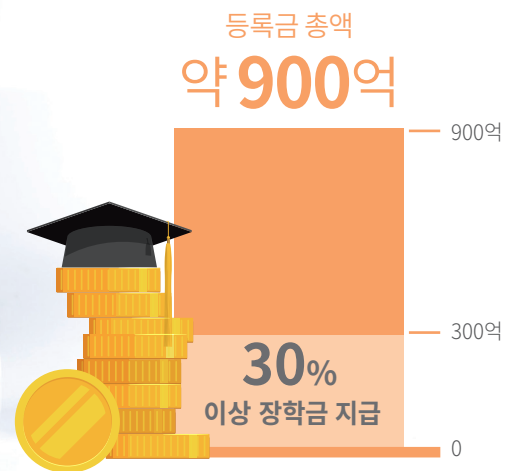
»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 국제화 소양 함양을 위한 노력
- 3년의 교육과정 중 6개(각기 다른 과목) 이상의 외국어 강의 개설
- 풍부한 국제 강의경력과 실무경력을 갖춘 교원 확보
- 해외 교육기관과 MOU 체결 및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운영(공동학위, 학술대회 및 연구 등)

장학금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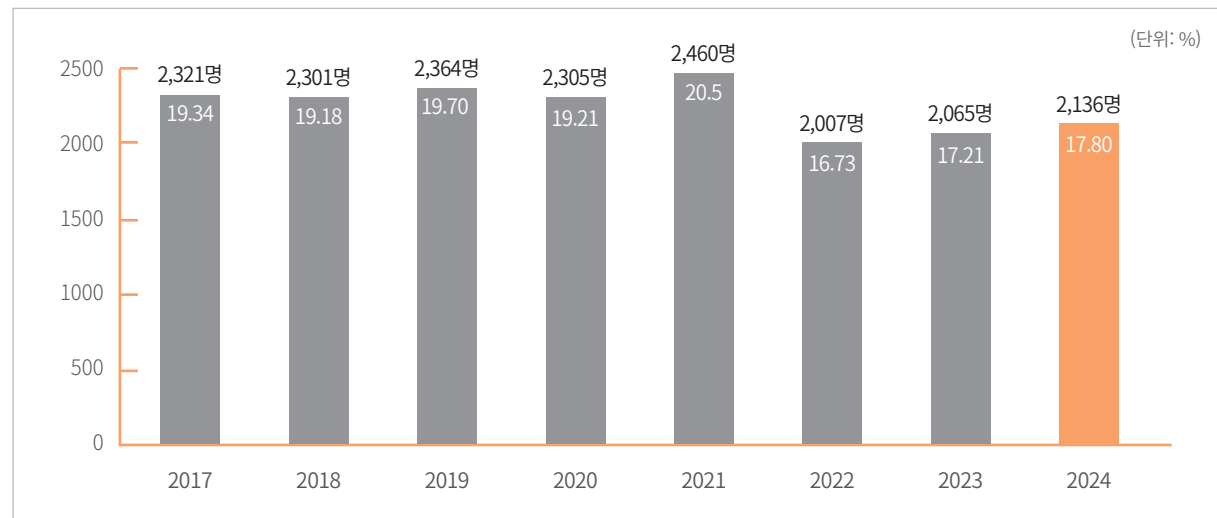
»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

-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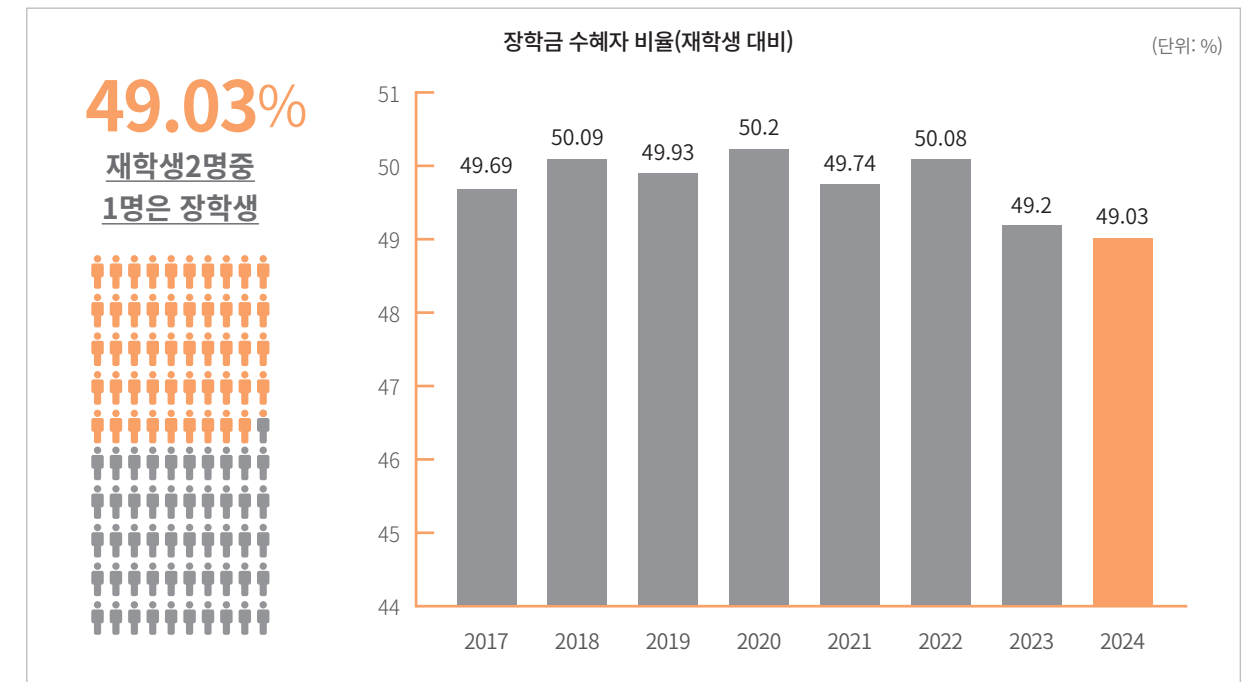
» 전액장학금(100% 이상) 수혜 인원 및 비율

- 로스쿨에서는 특별전형 입학자를 포함해 소득구간 3구간까지 100%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전체 재학생의 17.80%인 2,136명이 100% 이상의 전액장학금을 받았다.



» 2명 중 1명은 받는 장학금

- 전액장학금 외에도 로스쿨에는 성적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가 마련돼 있어 2024학년도에만 전체 재학생의 49.03%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 장학금 지원 순위 및 지원 비율(교육부 기준)

순위	지원내용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등록금 100% 이상 ※ 교재비, 생활비 등 생활장학금 지원 적극 권장
2순위	소득 4구간 등록금 90% 이상
3순위	소득 5구간 등록금 80% 이상
4순위	소득 6구간 등록금 70% 이상
5순위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하여 시행

※ (1순위) 국고 및 대학 자체재원 활용 지원 (2~5순위) 대학 자체재원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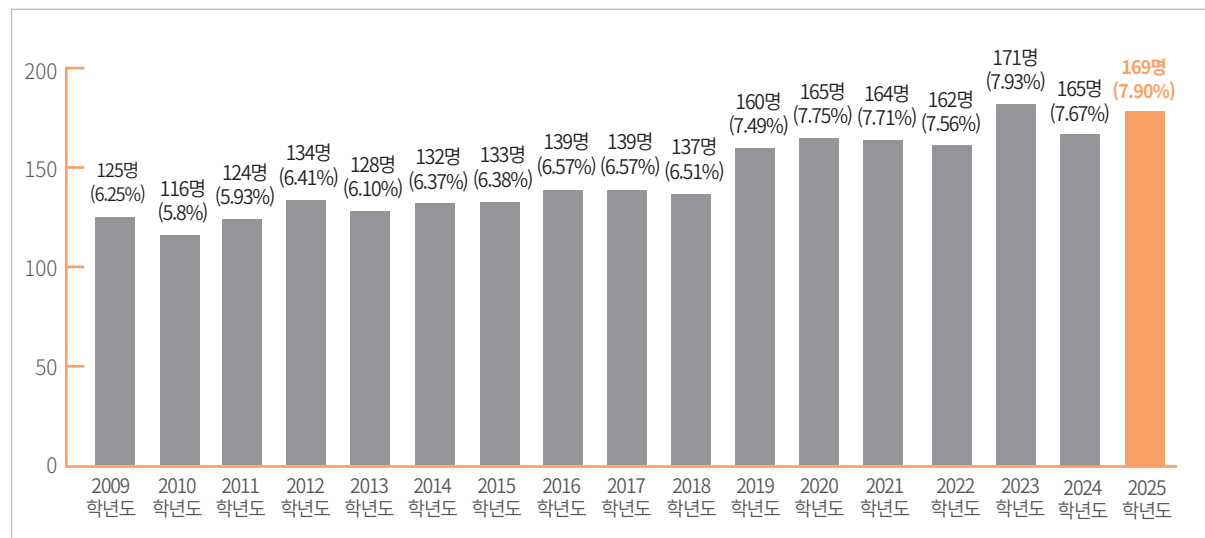
특별전형 선발제도

» 특별전형 선발제도

- 로스쿨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체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로스쿨은 매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인원 : 2,463명(2009학년도~2025학년도)

- 선발현황



※ 2018학년도까지는 매년 5% 이상을 선발했으나, 2019학년도부터 입학자의 7% 이상으로 확대하여 선발하고 있음.

- 선발대상 : 신체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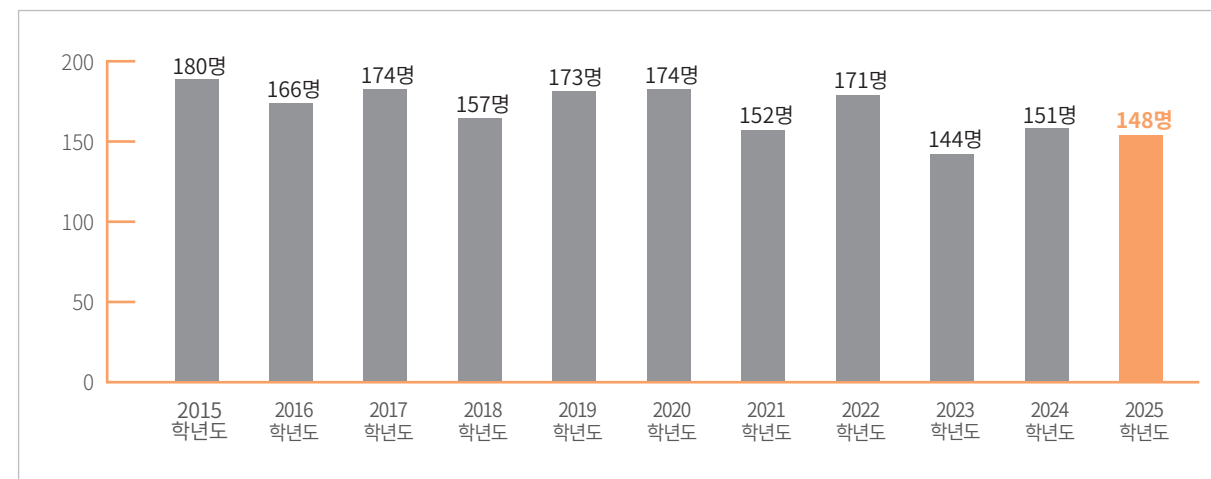
선발유형	공통기준
신체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경제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사회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자) 또는 그 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자세한 사항은 각 교 모집요강 참고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5학년도부터 지방 소재 로스쿨은 해당 지역 대학교 출신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고 있다.
- 제주 : 입학자의 5% 이상 선발
- 강원 : 입학자의 10% 이상 선발
- 경북, 동아, 부산, 영남, 원광, 전남, 전북, 충남, 충북(9개교) : 입학자의 15% 이상 선발



김영민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법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로스쿨 입시에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과감히 도전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로스쿨에서 3년간 학비 면제와 매달 100만 원씩 생활장학금까지 지원받음으로써 진정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교수진과 다양한 실무실습,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까지 단번에 합격했습니다.

송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저는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광주 지역 법무법인에 입사해 현재 책임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지역인재 선발제도가 있음에 따라 많은 수의 학생들이 각 지역에 연고를 두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고, 저의 자녀들 역시 광주에서 살아가길 희망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현황에 관심을 두고 법조인으로서 노력할 수 있는 일에 나서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육

» 기관별 실무수습 기회 제공

- 로스쿨은 법원행정처, 법무부, 국회사무처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학생에게 다양한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실무수습은 로펌, 법률사무소,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실시되는데 일부 학생은 실무수습을 통해 채용이 확정되기도 한다.

대상	• 로스쿨 재학생
실습기관	• 로스쿨 업무협약 체결기관(법원, 국회, 국세청, 경찰청, 사법연수원 등) • 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등), 법률사무소 등 •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실습기간	• 하계 또는 동계 방학 중 1주~4주
학점인정	• 학교별 1학점 ~ 2학점 인정

» 유관기관의 실무강의 지원

- 로스쿨은 판사, 검사 등 현직 법조인을 교원으로 활용하는 현장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 실무교육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기관	과목명	비고
법원행정처	민사재판실무(1학기) 형사재판실무(2학기)	강의지원은 부장판사를 원칙으로 하며, 서울권역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이외 권역은 로스쿨 소속지역 법원 지법부장을 파견
법무부	검찰실무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당해연도 2학기에서 차년도 1학기 또는 당해연도 1~2학기를 원칙으로 함
경찰청	경찰실무	1학기 또는 2학기에 출강을 희망하는 로스쿨에 파견하여 운영

» 리걸클리닉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

-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이란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 하에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무료 법률지원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실무능력을 기르는 제도다.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사건을 통해 사실관계 및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로스쿨에서 배운 법 이론과 판례를 적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로스쿨 교수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실제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한다.



◀ 명의 도용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을 대리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인하대 리걸클리닉센터 이연지 임상법학교수와 인하대 로스쿨 학생들. [사진=인하대 제공]

▶ 충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센터가 주관한 무료법률상담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법률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충북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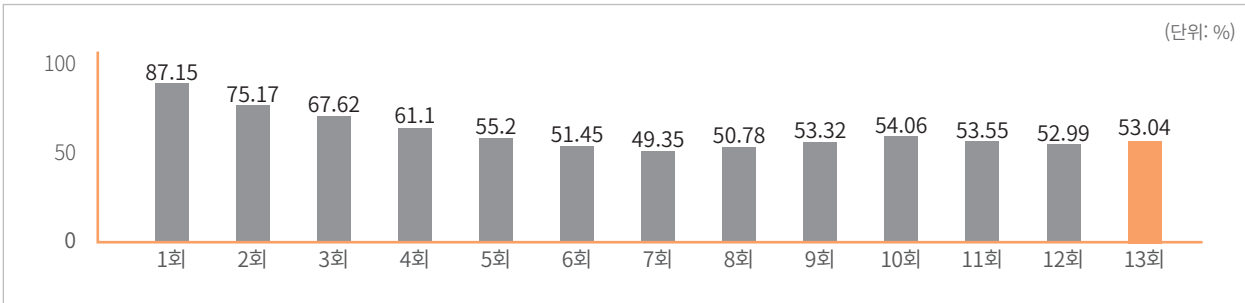
변호사시험

시험 목적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검증		
응시 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단, 5년 내에 5회만 응시 가능		
시험 시기	매년 1월, 휴식일(1일) 포함하여 5일간 실시		
시험 과목	필수과목	선택형 / 사례형 / 기록형 - 공법(헌법, 행정법) - 민사법(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 형사법(형법, 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법조윤리	선택형 - 8월 중 별도 시행	사례형(택1)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답안 작성 방식	구분	답안 작성 방식	비고
	선택형	수기(手記) 방식 -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OMR 답안지에 표기	기존 방식과 동일
	논술형 (사례형, 기록형)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 - 시험용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수기 방식(기존 방식과 동일) - 종이 답안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답안 작성	두 가지 방식 중 택일
합격 결정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과목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참고]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통계 (응시자: 3,2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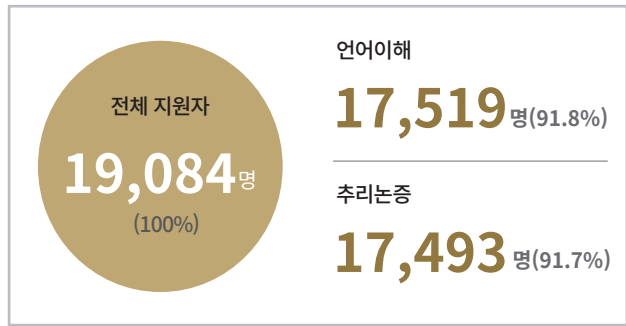
합격률		성별 합격자		전공별 합격자	
합격	1,745명(53.04%)	남성	984명(56.39%)	법학 전공	273명(15.64%)
불합격	1,545명(46.96%)	여성	761명(43.61%)	법학 비전공	1,472명(84.36%)

[참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응시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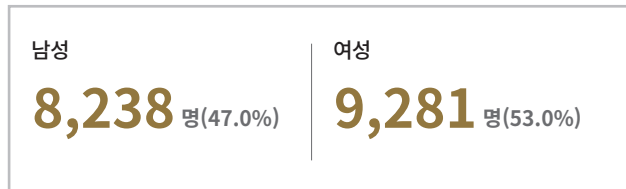


2025학년도 LEET 채점 결과

» 영역별 응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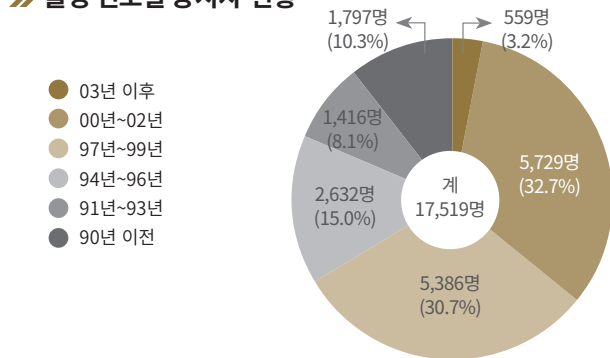
» 성별 응시자 현황



» 응시자 표준점수 분포도

표준점수	언어이해			추리논증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빈도(명)	비율(%)	누적 비율(%)
90.0 이상 ~ 95.0 미만				2	0.0	0.0
85.0 이상 ~ 90.0 미만				152	0.9	0.9
80.0 이상 ~ 85.0 미만				411	2.4	3.3
75.0 이상 ~ 80.0 미만				914	5.2	8.5
70.0 이상 ~ 75.0 미만	9	0.0	0.0	2,430	13.9	22.4
65.0 이상 ~ 70.0 미만	74	0.4	0.4	2,345	13.4	35.8
60.0 이상 ~ 65.0 미만	774	4.4	4.8	2,573	14.7	50.5
55.0 이상 ~ 60.0 미만	1,502	8.6	13.4	3,381	19.3	69.8
50.0 이상 ~ 55.0 미만	2,643	15.1	28.5	1,769	10.1	79.9
45.0 이상 ~ 50.0 미만	3,320	19.0	47.5	1,716	9.8	89.7
40.0 이상 ~ 45.0 미만	4,655	26.6	74.1	776	4.4	94.1
35.0 이상 ~ 40.0 미만	2,155	12.3	86.4	446	2.6	96.7
30.0 이상 ~ 35.0 미만	1,322	7.5	93.9	370	2.1	98.8
25.0 이상 ~ 30.0 미만	841	4.8	98.7	124	0.7	99.5
20.0 이상 ~ 25.0 미만	163	0.9	99.6	62	0.4	99.9
15.0 이상 ~ 20.0 미만	48	0.3	99.9	19	0.1	100.0
10.0 이상 ~ 15.0 미만	10	0.1	100.0	1	0.0	100.0
5.0 이상 ~ 10.0 미만	3	0.0	100.0	2	0.0	100.0
계	17,519	100.0		17,493	100.0	

» 출생 연도별 응시자 현황



» 계열별 응시자 현황

계열별 응시자 현황을 보면 언어이해 영역 응시자 17,519명 중에서 사회계열이 4,052명(23.1%)으로 가장 많았고, 상경계열 3,536명(20.2%), 인문계열 3,345명(19.1%), 법학계열 2,652명(15.1%), 공학계열 1,201명(6.8%), 사범계열 888명(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별 원서접수 현황

접수기간: 2024. 9. 23.(월) 09:00~27.(금) 18:00

대학명	모 집 정 원							지 원 현 황							경 쟁 률							전년도 경쟁률
	가군			나군			합 계	가군			나군			합계	가군			나군			합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일반	특별	계		
강원대				37	3	40	40				183	14	197	197				4.95	4.67	4.93	4.93	5.75
건국대	37	3	40				40	134	12	146				146	3.62	4.00	3.65				3.65	3.48
경북대	55	5	60	56	4	60	120	256	30	286	255	18	273	559	4.65	6.00	4.77	4.55	4.50	4.55	4.66	6.10
경희대	55	5	60				60	279	25	304				304	5.07	5.00	5.07				5.07	4.67
고려대				111	9	120	120				339	35	374	374				3.05	3.89	3.12	3.12	3.10
동아대	37	3	40	37	3	40	80	606	35	641	620	35	655	1,296	16.38	11.67	16.03	16.76	11.67	16.38	16.20	10.55
부산대	55	5	60	56	4	60	120	222	30	252	254	32	286	538	4.04	6.00	4.20	4.54	8.00	4.77	4.48	4.31
서강대	18	2	20	19	1	20	40	192	16	208	245	7	252	460	10.67	8.00	10.40	12.89	7.00	12.60	11.50	11.25
서울대	139	11	150				150	373	49	422				422	2.68	4.45	2.81				2.81	2.49
서울시립대	45	5	50				50	205	33	238				238	4.56	6.60	4.76				4.76	4.10
성균관대				111	9	120	120				309	46	355	355				2.78	5.11	2.96	2.96	2.32
아주대	23	2	25	23	2	25	50	175	18	193	177	18	195	388	7.61	9.00	7.72	7.70	9.00	7.80	7.76	8.58
연세대				111	9	120	120				360	49	409	409				3.24	5.44	3.41	3.41	3.02
영남대	32	3	35	33	2	35	70	355	41	396	373	32	405	801	11.09	13.67	11.31	11.30	16.00	11.57	11.44	12.46
원광대	30		30	25	5	30	60	676		676	519	81	600	1,276	22.53		22.53	20.76	16.20	20.00	21.27	24.80
이화여대				92	8	100	100				252	28	280	280				2.74	3.50	2.80	2.80	2.76
인하대	21	4	25	25		25	50	149	38	187	225		225	412	7.10	9.50	7.48	9.00		9.00	8.24	6.20
전남대	51	9	60	60		60	120	201	55	256	245		245	501	3.94	6.11	4.27	4.08		4.08	4.18	4.38
전북대	37		37	37	6	43	80	214		214	214	23	237	451	5.78		5.78	5.78	3.83	5.51	5.64	7.08
제주대	18	2	20	19	1	20	40	170	20	190	200	10	210	400	9.44	10.00	9.50	10.53	10.00	10.50	10.00	7.68
중앙대	46	4	50				50	431	26	457				457	9.37	6.50	9.14				9.14	8.84
충남대	50		50	43	7	50	100	241		241	209	27	236	477	4.82		4.82	4.86	3.86	4.72	4.77	4.75
충북대	40		40	25	5	30	70	162		162	90	16	106	268	4.05		4.05	3.60	3.20	3.53	3.83	3.50
한국외대	46	4	50				50	203	26	229				229	4.41	6.50	4.58				4.58	4.30
한양대				93	7	100	100				214	40	254	254				2.30	5.71	2.54	2.54	2.01
합 계	835	67	902	1,013	85	1,098	2,000	5,244	454	5,698	5,283	511	5,794	11,492	6.28	6.78	6.32	5.22	6.01	5.28	5.75	5.57

※ 경쟁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법학전문대학원 자체 집계 결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02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통계

» 총 합격인원

2,140명

» 특별전형 입학생 수

169명(7.90%)

» 성별,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합격자 현황

구분	성별		자교/타교		법학/비법학 전공	
	남성	여성	자교	타교	법학	비법학
인원(명)	1,167	973	402	1,738	116	2,024
비율(%)	54.53	45.47	18.79	81.21	5.42	94.58

» 연령별

구분	22세 이하	23~25세	26~28세	29~31세	32~34세	35세 이상
인원(명)	72	949	723	235	109	52
비율(%)	3.36	44.35	33.79	10.98	5.09	2.43

» 출신계열별

구분	일반전형			특별전형			총 계			비율 (%)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공학계열	127	29	156	5	3	8	132	32	164	7.66
농학계열	4	7	11	2	0	2	6	7	13	0.61
법학계열	72	35	107	7	2	9	79	37	116	5.42
사범계열	49	66	115	5	6	11	54	72	126	5.89
사회계열	282	284	566	25	29	54	307	313	620	28.97
상경계열	287	209	496	22	13	35	309	222	531	24.81
신학계열	2	1	3	0	1	1	2	2	4	0.19
약학계열	5	3	8	1	1	2	6	4	10	0.47
예체능계열	5	3	8	2	2	4	7	5	12	0.56
의학계열	16	12	28	0	0	0	16	12	28	1.31
인문계열	155	177	332	11	17	28	166	194	360	16.82
자연계열	59	40	99	6	5	11	65	45	110	5.14
기타	17	25	42	1	3	4	18	28	46	2.15
계	1,080	891	1,971	87	82	169	1,167	973	2,140	100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을 다음 계획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시험 성적의 활용 및 응시 자격

-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당해 학년도에 한하여 유효하며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입학전형 필수요소 중 하나로 활용됨.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학생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26년 2월 졸업예정자(학위취득 예정자 포함)’임.
-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음.

» 시험 일시 및 장소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2025. 7. 20.(일)에 실시함.
 - 시험은 서울, 수원·용인, 부산, 대구·경산, 광주, 전주, 대전·청주,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인원에 따라 원하는 장소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춘천’, ‘제주’ 지구 제외)
- ⇒ 수험표 출력 시(7. 1.~7. 20.) 배정된 학교 확인

» 시험영역 및 시험시간

- 법학적성시험은 언어이해 영역, 추리논증 영역, 논술 영역으로 구성됨.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교 시	시험영역	문항 수	시험시간	문항형태
1	언어이해	30	09:00 ~ 10:10 (70 분)	5지선다형
2	추리논증	40	10:45 ~ 12:50 (125분)	5지선다형
점 심 시 간			12:50 ~ 13:50	
3	논 술	2	14:00 ~ 15:50 (110분)	서답형
계	3개 영역	72문항	305분	

-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에게는 홀수형, 짝수인 수험생에게는 짝수형 문제지가 배부됨. 논술 영역의 문제지는 단일유형임.

» 출제 기본방향

가. 공통 사항

-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함.

나. 언어이해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독해 능력, 의사소통 능력 및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함.

다. 추리논증 영역

-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추리(reasoning) 능력과 논증(argumentation) 능력을 측정함.

라. 논술 영역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필요한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함.



» 원서접수 및 응시수수료

가. 원서접수

- 원서접수 기간은 5월 27일 09시부터 6월 5일 18시까지이며,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
[홈페이지 주소 : <https://leet.uwayapply.com>]
- 기간 내에는 24시간 내내 접수 가능, 기간 종료 후 접수 불가

나. 응시수수료

- 2026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만 8천 원임.
- 응시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을 통해 납부할 수 있음.

다. 응시수수료 면제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한 자

• 신청방법

- 1)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원서접수

- 2) 상기 고시에 따른 증빙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아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025년 6월 3일 ~ 2025년 6월 5일(우체국 소인 기준)

-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원서접수 기간 내 발급) 서류만 인정, 방문제출 불가

- 주소 :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면제 담당자(02-752-2035)

• 증빙서류

-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서(접수번호 기재, 서명 또는 날인 必) 1부

- 응시수수료 면제 입증서류 1부 <수험생 본인 명의, ① ~ ⑥ 중 택 1>

① 수급자 증명서

② 차상위계층 확인서

③ 자활근로자 확인서

④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부가급여 또는 차상위 해당자에 한함.)

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⑥ 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험생 본인 명의의 “정부 및 공공기관 발급 문서”만 인정

라.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반환함.(「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1) 접수기간 내 취소신청 : 응시수수료 전액 환불

- 접수마감일 6월 5일까지 : 100%(248,000원)

2) 접수기간 이후 취소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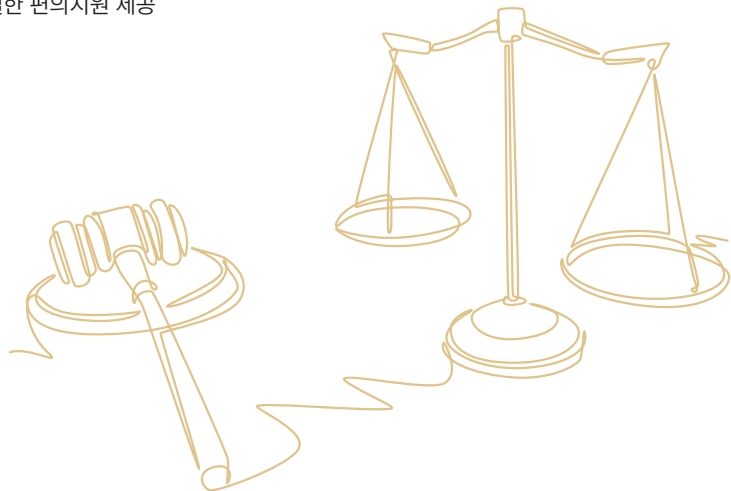
- 1차 :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6월 6일 ~ 6월 12일): 60%(148,800원)
- 2차 : 1차 기간 다음날부터 14일간(6월 13일 ~ 6월 26일): 50%(124,000원)
- 3차 : 2차 기간 다음날부터 시험 4일 전까지(6월 27일 ~ 7월 16일): 40%(99,200원)
- 시험 3일 전부터(7월 17일 ~): 0%(반환불가)

» 문제 및 정답공개, 성적발표

- 시험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문제와 정답을 탑재하되 최종 확정된 정답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심사 후 공개함.
- 시험 성적은 8월 19일(화)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수험생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하고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음.
 -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 성적으로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함.
 - 영역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음.
 - 수험생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위해 개별 학교에 제출한 법학적성시험 성적이 협의회가 해당 학교에 제공하는 실제 성적과 상이한 경우,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심각한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를 취함.
 - 논술 영역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답안의 채점 여부 및 활용 방법을 정함.

» 장애인 등 수험생 편의지원

- 대상 : 원서접수자 중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 임신부 등 기타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묻는 란에 체크하고, 장애인 증명서,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
 - ※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 서류 접수 후 수험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적절한 편의지원 제공



»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함.
- 매 교시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하며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시험 중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미디어플레이어, 무선이어폰 등 각종 전자·정보·통신 기기(저장장치 포함) 및 수험자료 일체, 메모지, 포스트잇, 책받침 등을 소지할 수 없음.
 - 휴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

<시험 중 물품 소지 관련 세부 안내>

-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사용 가능하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전자시계(스톱워치, 수험용 시계, 웨어러블 기기 포함)의 사용을 금합니다.
- 귀마개는 소음 차단을 위해서 귀에 넣어 사용하는 소형 스펀지 귀마개만 감독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렌즈가 무(無)색이 아닌 안경, 선글라스는 착용할 수 없으며, 안경에 별도의 장비를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 감독관으로 하여금 응시자의 시선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얼굴을 가리는 모자, 천 등을 착용할 수 없습니다.
- 스테이플, 자, 칼 등 문제풀이와 관계없는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물(투명한 용기에 담긴 생수) 이외의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물병은 책상 아래 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 수험생은 문제지 및 답안지에 기재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필히 준수하고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거리는 행동, 반복적인 헛기침 등)를 해서는 안 됨.
- 수험생은 수험표와 함께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필히 지참해야 함.
 - ※ 수험표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통해 본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내용 그대로 출력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를 이면지에 인쇄하거나 수험표 앞·뒷면에 임의의 표기가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답안지에 정해진 표기, 답안 이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해서는 안 됨.
- OMR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한함.)을 사용해야 함.
 - ※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안지에 기재된 올바른 표기방법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OMR답안지에 연필 등 다른 필기구로 가표기 할 경우, 필기구에 상관없이 판독 시 이중표기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책임임.
- OMR답안 수정 시 “수정테이프”(수정액 사용금지)만을 이용해야 하며, 수정테이프가 떨어지는 등 불안정한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의 책임임.
 - 수험생이 희망하는 경우 답안지 교체 가능
- 답을 2개 이상 표기하는 경우와 불완전하게 표기하여 오류로 판독되는 경우 해당 문항은 ‘0점’ 처리함.
- 논술답안지는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하거나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교정부호를 사용하여 수정해야 함.
 - 논술답안지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금지
- 답안지를 교체하였더라도 성명, 수험번호, 답안 등 답안지에 기재하는 모든 내용을 해당 시험시간 내에 작성해야 함.
 - ※ 시험 종료령 시작 즉시 필기구를 내려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함.

» 부정행위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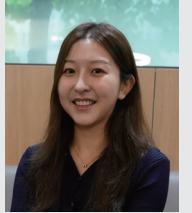
- **경미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 취소
 - 시험 종료령이 올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 허용되지 않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여 지정된 시간 이후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경미한 부정행위
- **중대한 부정행위** :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거나 자신의 답안을 다른 수험생에게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전자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중대한 부정행위
- **심각한 부정행위** : 민사 또는 형사상 조치 및 당해 연도 시험 점수를 취소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4년간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 2인 이상이 사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모의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판단되는 행위
 - 법학작성시험 성적표, 어학 성적표, 학부 성적표 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기타 위와 유사한 심각한 부정행위
- 그 밖에 시험 관리자,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시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심의를 통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및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음.
- 개인의 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참하여야 하는 물품은 매 교시마다 감독관이 검사한 후 승인한 경우에만 휴대가 가능함.

» 기타사항

- 시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leet.uwayapply.com)를 참조하기 바람.

재학생 인터뷰

김 가 영 (서울대 로스쿨)



“법학은 따뜻한 논리를 가진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법학은 실체적 정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그 논리는 매우 치밀해야 하잖아요. 이렇게 냉철하고 차가운 논리 속에서도, 이 사람이 왜 이런 사건을 겪게 됐고,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됐으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에 더 바람직한 결론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따뜻한 동기를 가진 학문인 것 같아요. 특히 판례를 보면 사람들의 인생이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라 법을 공부한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문 영 민 (건국대 로스쿨)



“완벽하게 하려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요. 로스쿨에서 공부해야 할 법 과목 분량은 상상 이상으로 많거든요. 선행하면서도 ‘아직 이해를 다 못했는데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 될까?’하는 마음에 불안했던 나머지 1회독을 겨우 더 하고 입학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빠르게 다음 진도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회독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익숙해지는 것만큼 법학과 친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 예 은 (아주대학교 로스쿨)



“로스쿨을 다니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체력이예요. 일단 어디가 아프면 공부를 하는 게 불가능하고, 체력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생기기 너무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다 느껴도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시험 기간에 정 안 되겠으면 그 나머지 시간, 아니면 방학이라도 미친 듯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탄탄히 쌓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강 일 (영남대 로스쿨)



“로스쿨 공부는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맞아요. 트랙터, 경운기 몰아가며 밭일과 과수농사, 닭과 오리, 호로조 등의 목축업과 도축업, 각종 목공 기계와 굴착기 등의 중장비 운전, 콘크리트 타설과 경계석 설치, 도배 및 인테리어 등 정말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을 해 본 제가 장담해요. 해본 모든 일 중 공부가가장 어렵습니다. 이런 힘겨운 길을 가는 전국의 모든 로스쿨생들과 이를 준비하는 입시생들, 정말 답답하실텐데 꼭 참고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 모두에게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 위 인터뷰는 매거진 <로스쿨 창>, 인터넷신문 <로스쿨타임즈>에서 발췌했습니다.

졸업생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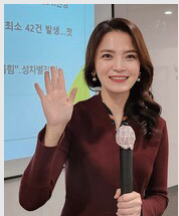
손 영 현 국선전담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는 어느 법조인보다 형사재판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에요. 다만, 멋있는 형사 변호인보다는 정말 자잘하고 소소한 쟁점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사회 저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이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소한 사건이라고 해도 형사 법정에서 나오는 결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임 주 혜 변호사 (법률교육전문 강사)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법률 특강을 시작하게 됐고, 강의가 입소문을 타면서 그 이후에는 청소년 법률 교육, 대기업 법정 필수 교육 등에도 참여하는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방송에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법적 쟁점이나 새로운 법 개정 사항, 주요 판례들을 소개하는 법 전문 패널로 활동하며, 법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률 교육 전문가로서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장 준 혁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실체를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이 없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할 수 있는 업무의 스펙트럼이 넓고 그 이후에도 진로가 다양합니다. 새로운 일을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고, 정의를 위해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성 민 곤 119광역수사대장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미개척 분야라고 생각했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갖고도 충분히 특성화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했어요.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소방전문 변호사’가 된다면, 조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 인터뷰는 매거진 <로스쿨 창>, 인터넷신문 <로스쿨타임즈>에서 발췌했습니다.

로스쿨타임즈

<로스쿨타임즈>는 전국의 로스쿨 소식을 비롯해
로스쿨 입학 정보, 법학적성시험·변호사시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법학계·법조계 인사 인터뷰를 통해 법조인의 길을 꿈꾸는 이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와 유용한 조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schooltimes.com/>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www.yu.ac.kr/lawschool>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